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	-------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규범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올바른 삶의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문화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도덕규범을 서술하고, 도덕 규칙이 사회 제도와 갖는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도덕규범은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임을 간과한다
- ②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③ 도덕 관습의 기술보다 도덕 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 ④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⑤ 도덕 판단의 이론적 근거 정립이 윤리학의 주요 과제임을 간과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백성은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恒心]을 유지하기 어렵다.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의 생업을 마련해 주어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한다.

<보 기>

ㄱ.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ㄴ. 백성의 교화를 위해서는 생계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ㄷ. 직업을 통한 물질적 풍요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ㄹ. 분업을 통해 직업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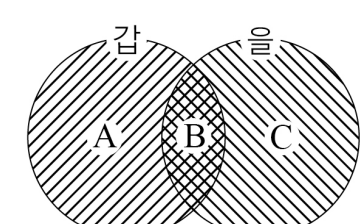
갑: 공리의 원리는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문제 상황>

A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주말에 자원봉사를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자연적 성향을 버리고 신의 명령에 따라 행위하세요.
- ② 사회 전체의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위하세요.
- ③ 선한 행위를 습관화하여 얻어진 덕에 따라 행위하세요.
- ④ 개인적 신념이 아닌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 행위하세요.
- ⑤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기보다 의무 의식에 따라 행위하세요.

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p> <p>을: 쾌락과 고통의 감정,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을 갖는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 이러한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보 기>

- ㄱ. A: 인간은 자연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
 ㄴ. B: 인간을 비롯한 일부 고등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ㄷ. B: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되는 유일한 존재이다.
 ㄹ. C: 도덕적 권리를 지니고 있는 비이성적 개체가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정의로운 분배의 충분조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어떤 사람이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그 소유물은 정당한 것이 된다.

을: 정의로운 분배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으며, 소득의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이 된다.

<보 기>

- ㄱ. 갑: 소유 권리는 자기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정당화된다.
 ㄴ. 을: 부의 재분배를 위해 개인의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ㄷ. 을: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ㄹ. 갑과 을: 분배 절차의 공정성이 분배 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형벌은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으며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살인자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시민이 아닌 적으로 간주되어 처형되는 것이다.</p> <p>을: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혹성만을 지녀야 하며,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다. 사형은 한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 국가의 전쟁 행위일 뿐이다.</p>
(나)	<p>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p>Legend: (범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p>

- ① A: 형벌은 공공의 선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 ② A: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사회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가?
- ③ B: 사형은 살인자를 도덕적 인격으로서 존중하기 위한 형벌인가?
- ④ C: 형벌의 지속성보다는 형벌의 가혹성을 더욱 중시해야 하는가?
- ⑤ C: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져서는 안 되는가?

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에 대한 개체 복제는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되며,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간 개체 복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질병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인간 배아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도덕적 지위가 있는 인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갑: 비록 배아는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세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아 복제도 개체 복제와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을: 배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녔을 뿐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다양한 신체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어 난치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 ① 배아는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 ② 모든 배아 복제는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③ 배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가?
- ④ 인간 개체 복제는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훼손하는가?
- 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배아 복제는 허용 가능한가?

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들이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만일 한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 고통을 고려하지 않아야 할 도덕적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성질을 가졌든 간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 존재의 고통을 비슷한 다른 존재의 고통과 동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①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연구나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 ②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 ③ 모든 생명체는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 ④ 채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도덕적 지위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⑤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이익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기업이 자유 경제에서 갖는 사회적 책임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 없이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을: 기업은 환경 보호나 사회 복지 공헌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갖게 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에 도움을 준다.

- ① 갑: 기업이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 ② 갑: 기업 활동의 본질은 경쟁을 통한 기업 이익의 극대화이다.
- ③ 을: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 증진이다.
- ④ 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 ⑤ 갑과 을: 기업은 위법적 수단을 통해 이윤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현대 과학 기술이라는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된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전 지구적 차원의 위험, 인류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으며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부른다.

- <보 기> —
- ㄱ. 인류의 존속이라는 무조건적인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 ㄴ. 인간의 책임 범위를 자연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야 한다.
 - ㄷ.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의도에서 책임을 도출해야 한다.
 - ㄹ. 과학 기술의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O에게
결혼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 줘서 고맙네. 자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하며 몇 가지 당부하겠네. 먼저, 부부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역할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또한 부부간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주체성과 자유를 존중하며 서로를 동등하게 바라봐 주는 자세가 필요하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잃고서 그저 친밀하게만 지낸다면 마침내 서로를 알아보고 업신여길 수도 있으니, 언제나 상경여빈(相敬如賓)의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선조들의 가르침도 기억하길 바라네. …(후략)…

- ① 부부는 각자의 고정된 성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② 부부는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서로 공경하며 존중해야 한다.
- ③ 부부는 상대의 행복을 위해 무조건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 ④ 부부는 서로의 차이를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 ⑤ 부부는 예의와 격식으로부터 벗어나 친밀함을 유지해야 한다.

1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p> <p>을: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국가라는 하나의 인격은 평화 유지와 공동 방어를 위해 각 개인의 모든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p> <p>병: 인간은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입법부 구성에 합의한다. 입법자들이 인민의 재산을 파괴하려는 경우, 인민이 맡긴 권력은 신탁 위반으로 인민에게 되돌아간다.</p>
(나)	

- ① A: 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② B: 국가 안에서만 개인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C: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④ D와 F: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임을 모르고 있다.
- ⑤ E: 국가 권력은 개인의 동의를 통해 수립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 그 자체만으로 있게 되는 것이다. 영혼 자체가 사물 자체를 볼 수 있으며, 참된 지혜는 죽은 다음에야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을: 죽음은 태어남, 늙음, 병듦과 더불어 인간이 겪는 괴로움이다. 삶이 있으니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니 삶이 있다. 생명의 과정은 바퀴처럼 돌아 끝이 없는 것이다.

— <보 기> —

ㄱ. 갑: 죽음과 동시에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소멸한다.
 ㄴ. 갑: 참된 지혜는 육체에서 해방된 영혼을 통해 얻을 수 있다.
 ㄷ. 을: 현생에서 중생이 쌓은 업(業)은 내세에 영향을 미친다.
 ㄹ. 갑과 을: 죽음을 고통으로 인식하여 되도록 회피해야 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 협동 체제의 조건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또한 그것은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것으로, 법에 충실한 범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을: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만약 다수결에 의해 승인된 악에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받게 될 처벌까지 거부해야 한다.
- ② 갑: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법에 대해 불복종해야 한다.
- ③ 을: 다수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④ 을: 시민 불복종이 의도하는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정의로운 헌법하에서는 부정의한 법이 제정될 수 없다.

15.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불치병 환자의 동의와 요구가 있더라도 의료진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거나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을: 불치병 환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에 의한 약물 투여와 같은 인위적 개입이 아닌 연명 치료 중단은 허용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 <보 기> —

ㄱ. 갑: 안락사는 존엄한 인간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ㄴ. 을: 연명 치료 중단이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ㄷ. 을: 환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도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ㄹ. 갑과 을: 의료진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6.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정보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 정보라 하더라도 삭제할 금지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을: 정보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떠한 개인 정보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정보 자기 결정권의 행사를 통해 잊힐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보 기>
 가. 갑: 개인 정보 보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나. 을: 개인은 자기 정보의 공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을: 정보 자기 결정권과 잊힐 권리의 보장은 양립할 수 없다.
 르. 갑과 을: 자기 정보에 대한 개인의 삭제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진다고 해서 그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의견이 옳은 것일 수 있으며, 설령 그 의견이 틀리고 통설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토론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의 근거를 조금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우리는 토론을 통해 진리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 ① 인간은 자신이 가진 의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가?
 ② 인간은 비판적 논증을 통해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가?
 ③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의견은 토론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④ 다수에 의해 인정된 진리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⑤ 자신의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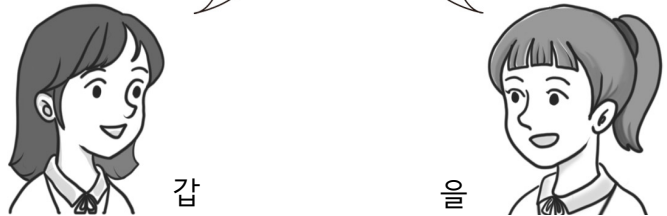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인(聖人)의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우게 해 주고 배를 채워 주며,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튼튼하게 해 주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과 욕망이 없게 하고, 현명한 자들이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무위(無爲)를 행한다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 ① 연기(緣起)를 자각하여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②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여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③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 도(道)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④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 인의(仁義)의 덕을 실천해야 한다.
 ⑤ 부쟁(不爭)의 덕을 바탕으로 자연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

19.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性)의 목적은 출산과 양육이므로 성적 관계는 서로 간의 사랑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부부 사이에서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성적 관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인격 존중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면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 ① 갑: 성적 관계의 정당성은 세대의 존속과는 무관하다.
 ② 갑: 성적 관계의 쾌락적 가치는 생식적 가치보다 중요하다.
 ③ 을: 성적 관계는 도덕적 가치와 무관한 독립적인 영역이다.
 ④ 을: 상호 동의는 성적 관계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⑤ 갑과 을: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2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과학 기술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연구 성과의 활용과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과학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어서는 안 된다. 과학 기술은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나) 과학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과학 기술의 연구 활동 및 결과의 활용에 대한 과학자의 공적인 책임 의식이 없다면 인류는 과학 기술에 종속당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은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X: 과학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의 배제를 강조하는 정도
- Y: 과학 기술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
- Z: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